

# 巨野 이끝 민주 원내대표 오늘 선출

### 대선 패배 후유증 치유·당 통합 개혁 입법 마무리 등 과제 산적 5명 경쟁 ... 2차 결선투표 변수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24일 진행 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박빙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거대 야당의 지휘봉을 누가 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패배 후유증을 치유하고, 당을 통합해야 하는 등의 과제 속에서 후보군 경쟁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선거 하루 전인 23일 5명의 주자(안규백 김경협 박광온 박홍근 이원욱·선수 및 가나다 순)가 출마 일성으로 내건 것도 '선(先) 단합·후(後) 수습'이었다.

아울러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부터는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는 만큼 정부·여당과의 초반 관계 설정이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 문제를 두고 4월 국회에서 국민의힘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명칭 변경 등 일부 기능을 보완하더라도 여가부 자체를 없애는 데에는 결사반대하고 있다. 청와대의 협조 거부로 임시보류된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은 물론 줄줄이 이어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정국의 대치 전선을 가파르게 할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거대 야당 원내 사령탑으로서 사안별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전략적 유연성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절대다수인 172석을 활용한 '발목잡기'라는 정부·여당의 역공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마냥 야당의 선명성만 강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아직 한 달여 남아 있는 만큼 개혁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언론 개혁 입법이 쟁점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문제

인 정부 임기 내에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언론중재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등 검찰·언론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개혁 강력 추진"(박광온),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완수"(박홍근),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언론개혁은 8월 전당대회 전에 마무리"(안규백) 등 원내대표 주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개혁 입법 속도전을 약속한 상태다.

21대 국회 개인 당시 국민의힘과의 협상 파행으로 '기형적' 상임위 배분이 이뤄졌던 만큼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새 원내대표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2시 172명의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차기 원내대표로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는 의원이 나오지 않으면 10% 이상을 득표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권 발표를 한 뒤 2차 투표를 진행한다.

여기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투표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단

#### 이형석 의원 등 위원 7명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후보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공천하고, 지방선거기획단에 이형석(북구)을 국회의원 등을 선임했다.

민주당은 23일 김영진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선거기획단 구성안을 발표했다. 지방선거기획단은 조순재 전략기획위원장을 간사로, 송기현 정책위수석부위원장, 정준숙 전국 여성위원장, 민병덕 제2사무부총장, 전용기 의원, 신현영 의원, 이형석 의원, 최혜영 의원 등 7명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당헌당규상 지방선거기획단은 15명 안팎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추가 인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윤호중 "새 정부 출범 전 검찰개혁 완수 총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아섰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뺏속까지 검찰주의자(인 사람들)로 채우고 있어 걱정이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수사권·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청와대 이전에만 급급하던 윤 당선인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코로나 피해 극복부터 챙기겠다던 약속을 2주간 방치한 점은 유감스럽지만 늦게나마 우리 당의 2차 추경 제안을 수용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이라도 당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고 온전하게 보상하도록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등 논의의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관련해 여야의 유사한 공약도 하루빨리 정책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물론이고 한국형 고령화 상환 가점 대출제도(PPP) 도입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6·1 지방선거 라운지

#### "주민 섬기는 구청장"...황현택 광주시의원, 서구청장 출마

광주시의회 황현택 의원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광주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구청장은 더 좋은 목표를 제시하고 주민과 함께 소통해 그 목표를 반드시 완수해야 할 자리"라며 "정무적인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겸손하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부패 없는 구청장, 정의롭고 공정한 구청장, 민주 인권을 실천하는 구청장으로서 공무



원들과 하나 돼 주민을 섬기는 구청장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구를 더 완벽하게 만들 7대 핵심공약으로 ▲더 안전한 서구 ▲더 튼튼한 서구 ▲더 희망찬 서구 ▲더 잘사는 서구 ▲더 쾌적한 서구 ▲더 따뜻한 서구 ▲더 소통·상생 서구 등을 내놓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박시종 "더 크고 행복한 광산 만들겠다" 광산구청장 출마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23일 "더 큰 광산을 설계하고 더 행복한 광산을 꿈꾸는 새로운 광산을 만들겠다"면서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 광산구 평동 비즈니스센터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지금껏 공익, 민주주의, 시민의 권익·행복을 위해 제 삶을 바쳐왔고 김대중 대통령 비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국정을 배우고 노무현재단



리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

#### 윤봉근 "구민과 함께하는 광산 건설" 광산구청장 출마 선언

윤봉근 대통령직속 국민소통위원은 23일 "행복한 변화로 구민과 함께하는 광산을 만들겠다"면서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장덕동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30년간 다져온 교육·행정 경험으로 광산구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행복 광산"을 만들기 위한 7대 핵심 공약



약속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강진의 기적 만들겠다"...강진원 강진군수 출마 선언

강진원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선거 예비후보는 23일 강진 다산초당 앞에서 강진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강진. 강진의 기적! 역전의 강진!'을 기치로, 위기에 처한 강진의 현실, 강진 발전을 위한 핵심 목표, 주요 공약 등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연간 관광객 5백만명 유치 ▲신규 일자리 5000개 창출 ▲가구당 연소득 5000만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영산강 신르네상스 시대"...이민준 도의원 나주시장 출마

이민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23일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영산강 新(新)르네상스 시대'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나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나주시민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도의원이 아니라 시장으로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너지밸리를 글로벌 에너지산업

업의 메카로 육성 ▲나주읍성, 나주목 관아 복원을 통한 전년 문화관광도시 구현 ▲농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스마트 농업과 6차 산업 육성 ▲교육 인프라 투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

### 신안동 상업부지, 땅

176평, 오피스텔 허가 득  
매매 - 21억, 조정가

### 덕남동 임야, 최고 투자처

660㎡, 지분매매, 개발호재 多  
매매 - 4400만원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33평, 사무실 전용, 전망좋은  
급매 - 8천만원, 즉시 입주

### 대인동 오피스텔부지, 땅

156평, 9층 허가 득  
매매 - 18억 5천만원, 조정가